




{ 전라북도  
관광스토리텔링 210 選  
Tourism Storytelling

정음



# 천하제일의 단풍절경 곧은 선비정신의 고장

동학농민의 발상지, 너른 들녘에서 발전시킨 농경문화  
곧은 선비정신으로 당당하게 살았던 이 고장 사람들—



## TOURISM STORYTELLING

전라북도 관광 스토리텔링 210선

# 정읍

1. 비경들이 양의 창자처럼 들어찬 내장산 ● 06
2. 여인의 긴 기다림, 정읍사 공원 ● 15
3. 정읍 충렬사 공원 ● 18
4. 정읍농악과 유지화 ● 22
5. 강광례와 홍보가 ● 27
6. 조선시대 호남 상류층 가옥, 김동수 가옥 ● 30
7. 백정기 의사 기념관 ● 33
8. 피향정 ● 37
9. 정읍술 죽령고와 송명섭 ● 40
10. 말목장터, 만석보유지비 ● 43
11. 고부관아터, 고부향교 ● 47
12.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황토현전적지 ● 50
13. 동진강의 물소리가 들려오는 곳, 무성서원 ● 55
14. 정극인과 상춘곡의 고을, 정읍 칠보 ● 61





▲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전경

## 역사속에서 잠자던 이야기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내부에는 전봉준선생 유품 및 당시 생활용품을 전시중이며, 동학농민운동에서 보여준 개혁 정신과 민족자주정신은 그 이후 민족독립운동의 전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 내장산의 전경

## 1. 비경들이 양의 창자처럼 들어찬 내장산

내장산(內藏山)은 정읍과 순창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산세가 아름답다. 주봉인 763m의 신성봉을 중심으로 장군봉, 연자봉, 까치봉, 연지봉, 망해봉, 불출봉, 서래봉, 월영봉 등 아홉 봉우리들이 내장사를 감싸듯 휘감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산이다. 산세가 부드러워 어느 골짜기에서 산행을 시작해도 1~2시간이면 정상을 밟을 수 있다.

원래 영은산이라 불렀는데 내장산의 굴곡이 심한 산세가 마치 양의 창자와 비슷하다고 하여 내장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아름다운 경관들이 양의 창자처럼 들어차 있다는 뜻이다. 내장산에는 천년고찰 내장사를 중심으로 금선폭포와 금선계곡, 산삼약수와 떡뱀이골 등의 폭포와 계곡이 있다.

내장산의 가장 큰 매력은 잘 알려진 대로 역시 가을 단풍이다. 내장산의 단풍은 다른 곳의 단풍에 비해 유난히 붉은 것이 특징이며,



▲ 장군봉과 케이블카



내장사 일주문 부근의 단풍터널이 내장산 단풍의 백미이다. 잎이 작은 아기단풍과 굴참나무를 비롯해 각양각색의 활엽수로 단장한 내장산의 가을 단풍은 설악산만큼 현란하지 않고 지리산만큼 장엄하지 않고, 시골 새색시처럼 수수하면서 은근히 요염을 발하는 자태가 가슴을 설레게 한다는 게 여행객들의 전반적인 평가다. 현란함과 은근히 요염한 자태, 둘 중 어느 것이 사람을 끄는 매력인지는 사람 나름이겠다.

서리가 내리면 단풍잎은 더욱 붉어진다. 다른 나무는 낙엽이 되어 시들어 가는데 오히려 단풍잎들은 더욱 영롱한 빛깔을 내뿜는다. 내장산의 단풍잎은 꽃이다. 가장 곱고 아름다운 가을의 꽃이다. 단풍잎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붉게 타오른다. 특히 내장산의 최고봉인 신선봉 맞은편의 서래봉으로 오르는 길에는 수령이 수백 년 된 단풍나무들이 곳곳에 눈에 띄면서 안복을 선사한다.

내장산 입구의 단풍나무 가로수 길에서 만나는 우화정은 내장산이 숨겨둔 또 하나의 절경이다. 거울처럼 맑은 호수 한가운데 자리잡은 정자와 연자봉 중턱의 전망대, 그리고 단풍으로 물든 산을 오르는 케이블카가 거울같이 맑은 물가에 비쳐 황홀한 풍경을 그린다. 우화정은 짙은 어둠을 배경으로 불을 밝힌 야간 조명 단풍나무가 휘영청 밝은 달과 어우러지면, 단풍과는 또 다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에 걸쳐 있는 금선폭포의 경관 또한 절묘



▲ 서래봉 원경



▲ 내장사 일주문



◀ 내장산 단풍터널

내장산의 단풍잎은 꽃이다. 가장 곱고 아름다운 가을의 꽃이다. 단풍잎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붉게 타오른다. 특히 내장산의 최고봉인 신선봉 맞은편의 서래봉으로 오르는 길에는 수령이 수백 년 된 단풍나무들이 곳곳에 눈에 띄면서 안복을 선사한다.



◀ 우화정

하다. 신선문에서 조금 오르면 오색 무지갯빛 물보라를 이루며 20m 높이에서 시원하게 물줄기가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곳은 신선들이 목욕하던 곳이고, 고려 때는 좌선을 앞둔 승려들이 목욕재계하고 천일기도하던 곳이었다.

원적암 남쪽 산기슭에는 수령 750년을 자랑하는 비자나무 숲이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 자라고 있다.

거칠게 갈라진 비자나무 껍질에 손을 갖다 대면 문득 손끝에 오랜 세월의 맥박이 선명하게 전해온다. 뭉니뭉니해도 내장산의 자랑은 단풍이다. 내장산의 단풍잎은 잎이 얇고 작아서 단풍이 잘 들며 빛깔이 곱고 아름답다. 산골짜기와 바위 벼랑을 붉게 물들이는 단풍잎은 바로 자연의 영롱한 시요, 화려한 자연의 축제이다.

매년 정읍에서는 '내장산단풍 부부사랑축제'를 연다. 내장산 단풍과 정읍사의 주인공 일편단심 여인을 주제로 내장산 5주차장과 정읍시 일원에서 열린다. 단풍 관련 체험과 정읍사부부사랑가요제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내장산에는 굴거리나무, 비자나무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 우화정

내장산에 가려면 우선 눈에 띄는 정자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화정이다. 정자에 날개가 돌아 승천하였다는 전설이 있어 우화정(羽化亭)

정자에 날개가 돌아 승천하였다는 전설이 있어 우화정(羽化亭)이라 부르며 거울 같이 맑은 호수에 붉게 물든 단풍이 비치는 경관은 한 폭의 수채화 같다.

특히 복자기나무 한 그루가 진홍색으로 물들면 가을 정취에 한몫을 한다.





◀ 내장사 부도전

化亭)이라 부르며 거울 같이 맑은 호수에 붉게 물든 단풍이 비치는 경관은 한 폭의 수채화 같다. 호수 주변에는 당단풍, 수양버들, 두릅나무, 산벚, 개나리, 산수유 등이 둘러싸여 장관을 이룬다.

특히 복자기나무 한 그루가 진홍색으로 물들면 가을 정취에 한몫을 한다. 또한 이곳은 1482년경 내장산성이 있었던 곳으로 승군과 왜적이 싸웠던 곳이다.

## 금선계곡

금선계곡은 신선봉 골짜기로 내장산 중에서 가장 깊고 험준한 지형을 하고 있다. 층암절벽과 암굴, 폭포가 장관을 이루고 이 가



◀ 금선계곡의 용굴암터

금선계곡은 신선봉 골짜기로 내장산 중에서 가장 깊고 험준한 지형을 하고 있다. 층암절벽과 암굴, 폭포가 장관을 이루고 이 가운데 금선폭포와 사적으로 유명한 용굴암, 은봉암, 비래암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금선계곡은 금선암이란 암자가 있어서 붙여진 칭호이다.



## 정음

운데 금선폭포와 사적으로 유명한 용굴암, 은봉암, 비래암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금선계곡은 금선암이란 암자가 있어서 붙여진 칭호이다.

연장 2.2km, 신선봉과 까치봉에서 발원한 골짜기로 하늘을 덮는 울창한 수목 속에 있으나 주변 경관이나 수량이 부족한 게 다소 아쉽다. 숲 속에서 아름다운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여름에 더위를 잊는다.

금선암은 이 골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용굴암을 100m쯤 앞두고 오른 쪽으로 갈라지는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조선왕조실록을 피난시킨 은봉암으로 추정하는 곳이다.

## 용굴

내장산 금선계곡 내 기름바위 못 미쳐 오른쪽 절벽 위 까치봉으로 오르는 산벽 위에 있는 암굴이다. 넓이 8.5m, 길이 8m, 높이 2~2.5m의 크기이다. 안의의 난중일기에 의하면 1592년 (선조 25) 7월 1일 전주 경기전의 태조 어용과 전주사고 전적을 맨 처음 피난시킨 곳이 이 용굴암이며 안의 손흥록과 경기전 참봉 오희길이 지키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3개월이 지난 9월 28일 보다 험준한 비래암(飛來庵)으로 옮겼다. 더욱 안전한 곳을 택한 것이다.



▲ 조선왕조실록 내장산 이안 사적기비

안의의 난중일기에 의하면 1592년 (선조 25) 7월 1일 전주 경기전의 태조 어용과 전주사고 전적을 맨 처음 피난시킨 곳이 이 용굴암이며 안의 손흥록과 경기전 참봉 오희길이 지키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 용굴



## 금선폭포

금선골의 용굴에서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암반으로 이루어진 기름바위를 지나면 좌편 산벽에 암굴동문인 신선문에 이른다. 신선문에서 조금 올라가면 골짜기가 다하는 궁곡(窮谷)의 폭포에 이르니 바로 금선폭포이다.

금선계곡의 말단에 위치하고 신선봉에서 내리는 높이 18m의 폭포로서 주변에 신선문, 용굴, 기름바위 등이 있다. 이 일대는 험지로서 내장산의 비경을 이루고 있으며 4개의 폭포가 첫 폭포 위에 연달아 있지만 밑에서는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원이 짧아 가물면 물이 거의 말라버리는 것이 다소 흠이다. 승려들이 이곳에서 목욕재계 하고 1,000일 기도를 드린 후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원적계곡

연장 3.2km, 연지봉과 망해봉이 형성하는 계곡으로서 일명 먹방이골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계곡 물에 비치는 단풍들의 그림자가 특히 아름답다. 원적계곡은 연지봉에서 시작되는 골짜기로 금선계곡에 비하여 지형이 완만하고 암벽이 없어 예부터 교통로가 되었다. 원적골에는 원적암과 불출암이 있고 깊숙이 먹방이골을 거슬러 올라가서 진묵대사가 수도했다는 속칭 진묵토굴이 전해지고 있다.

## 도덕폭포

추령에서 장군봉에 이르는 골짜기에 있으며 높이는 20m이다. 전설에 1539년(중종 34) 내장산 영은사의 승려들이 작당하여 승적(僧賊)으로 둔갑, 민가에 돌아다니며 약탈을 일삼고 부녀자를 희롱하며 분묘를 발굴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몇 사람의 승적들은 이를 후회하고 이곳에서 목욕재계 하면서 지성으로 기도를 드려 그 중에서 도인이 나왔다고 하여 도덕폭포라 이름 지었다고 전한다.

승적 주변의 경치가 은밀하며 매우 아름답고, 장마철에 물이 불면 매표소 주변에서도 폭포의 장관을 볼 수 있다. 도덕폭포 상단으로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면 5단 폭포가 있고 상단 폭포는 높이 45m로 내장산에서 제일 큰 폭포이다.

도덕폭포는 승적 주변의 경치가 은밀하며 매우 아름답고, 장마철에 물이 불면 매표소 주변에서도 폭포의 장관을 볼 수 있다. 도덕폭포 상단으로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면 5단 폭포가 있고 상단 폭포는 높이 45m로 내장산에서 제일 큰 폭포이다.



## 몽계폭포

백암산 상왕봉으로부터 이어지는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하곡동 계곡의 울창한 숲 속에 깔려있는 우람한 바위덩어리들과 그 사이를 흐르는 맑은 물에 정신이 팔려 한창 오르다 보면 계곡 양편에 깎아지른 바위가 마치 문과 같이 박혀 있고, 이 석문에 들어서면 갑자기 앞을 막는 폭포가 있는데 이곳이 몽계폭포이다.

풍부한 수량과 부근의 경관이 빼어나서 여름철에 피서객들의 각광을 받는 곳이며, 산속 깊숙이 자리잡아 일명 숨은 폭포라고도 불린다.

하곡동 계곡의 울창한 숲 속에 깔려 있는 우람한 바위덩어리들과 그 사이를 흐르는 맑은 물에 정신이 팔려 한창 오르다 보면 계곡 양편에 깎아지른 바위가 마치 문과 같이 박혀 있고, 이 석문에 들어서면 갑자기 앞을 막는 폭포가 있는데 이곳이 몽계폭포이다.

## 내장사

636년에 영은스님이 오십동의 큰 절을 세웠다. 그 뒤 1098년(숙종 3) 행안스님이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 고쳐지었다.

1567년(명종 22) 희묵스님이 법당과 요사를 지었다고 전한다. 1639년(인조 17)에 부용스님이 사우를 짓고 불상을 도금했으며, 1779년(정조 3)에 영운스님이 대웅전 시왕전을 짓고, 요사를 새로 지었다. 그 뒤 백학명스님이 사세를 크게 중흥시키며 영은사(靈隱寺)를 내장사(內藏寺)로 부르게 되었다.

문루인 정혜루는 이름을 내장사로 고쳐 부르기 전, 한창 절의 세



▲ 내장사 관음전

◀ 내장사 전경







◀ 내장사 대웅전

1639년(인조 17)에 부용스님이 사우를 짓고 불상을 도금했으며, 1779년(정조 3)에 영운스님이 대웅전 시왕전을 짓고, 요사를 새로 지었다. 그 뒤 백학명스님이 사세를 크게 중흥시키며 영은사(靈隱寺)를 내장사(內藏寺)로 부르게 되었다.

력이 가장 번창할 때 세워진 것으로 1466년(세조 12)에 시작하여 다음 해에 다 지은 세 칸 누각이다.

정혜루기를 쓴 성임(成任)은 1464년(세조 9)에서 2년 동안 전라 관찰사를 지냈고 벼슬이 우참찬, 지중추부사에 이르렀으며 시문에 능하고 글씨를 잘 써서 유명한 학자이다.

영은사 법당상량기는 1872년 5월 12일에 판소리의 중흥자인 동리 신재효가 썼다.

그 어머니가 내장사 법당에 불공을 드린 일이 있고, 이 인연으로 법당상량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 내장사 정혜루

## 내장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백련사(白蓮寺)는 혹은 내장사라고도 말하며 내장산에 있다”고 하였다.

원래는 백련사(白蓮寺)였고, 660년(의자왕 20)에 유해선사가 세웠다. 언제부터 백련사라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근래에 와서 추사 김정희가 백련사를 벽련사(碧蓮寺)로 바꾸어 불려 절의 액자를 써 걸었는데 한국전쟁 때 타버렸다.

## 원적암

내장산 불출봉 중턱에 있다. 1087년(선종 4) 적암대사의 창건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인도로부터 들여 온 상아로 제작된 열반상이 있어 유명했다. 석가모니의 열반상으로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것이었다. 한때 1910년경 일본인들에 의해 도난당했다. 원적암은 7칸이나 되는 웅장한 암자였는데 한국전쟁으로 소실되고 1961년 작은 암자로 복구되었다. 원적암은 비자림으로 유명하다. 동쪽 기슭에 수령 500년을 헤아리는 거목들이 있다.

## 내장산의 굴거리나무 군락

굴거리나무의 작은 가지는 굵고 녹색이지만 어린 것은 붉은 빛이 돌며 털이 없다. 이 나무는 난대성 상록활엽수로 높이는 10m나 된다. 잎은 가지 끝에 모여서 서로 더불어 살며 홍색, 담홍색 또는 녹색의 긴 잎자루가 있다.

내장산에는 군데군데 이 군락이 있는데 5m 높이까지 자라며, 이 지역에서는 만병초라고 하여 신경통의 약재로 쓰이고 있다. 내장산에서 선인봉 입구까지의 계곡에는 굴거리나무 군락이 있다. 내장산에서 해발 300m의 전망대 사이에도 굴거리나무와 참단풍의 군락이 있고, 신갈나무, 졸참나무가 한 곳에 떼를 지어 모여 있다.

- 내장산위치 : 정읍시 내장동
- 전화 : 063-538-7875,6



▲ 내장사 대웅전 옆 삼층석탑

내장산에는 군데군데 이 군락이 있는데 5m 높이까지 자라며, 이 지역에서는 만병초라고 하여 신경통의 약재로 쓰이고 있다. 내장산에서 선인봉 입구까지의 계곡에는 굴거리나무 군락이 있다.





▲ 정읍사 공원

## 2. 여인의 길 기다림, 정읍사 공원

정읍이라는 고장. 그 곳 역에는 순박하고 지순한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서 있다. 그런 그녀 앞에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부르는 안타까운 탄식의 노래가 적혀 있다.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귀야 어강  
도리/ 아흐 다롱디리...(후략).

이 정읍사는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함을 비는 여인의 바람을 읊긴 노래다. 한글로 전하는 가장 오래된 노래이다.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달님이시여, 좀더 높이 높이 돋으시어 멀리 비추어 주소서



## 정읍

지금쯤 전주 시장에 가 계시옵니까?  
어두운 밤길을 가시다가 혹시 진땀을 디더 흙탕물에  
빠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웁니다.  
몸이 고달프실 텐데 아무 데나 짐을 부려놓고 편안히 쉬소서  
당신이 가시는 길에 날이 저물까 두렵사웁니다.

전북 정읍의 정읍사 공원은 백제 가요 중 유일하게 전해오고 있는 「정읍사」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이다. 정읍사는 장사를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매일 남편이 떠난 곳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었다는 부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백제 가요로 이 정읍사 공원이 있는 자리가 그 유래지이다.

정읍사는 백제가요 5곡 중(정읍사, 무등산곡, 방등산곡, 선운산곡, 지리산곡) 유일하게 현존하는 최고의 백제가요로서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으며 『고려사』, 『악지』삼국속악 백제 정읍(노래의 이름)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

정읍은 전주의 속현이다, 고을 사람이 장사나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 그 아내가 산의 돌 (바위)에 올라 바라보며 남편이 밤에 오다가 진흙탕물이라도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기다림 속에



▲ 정읍사노래비

### ◀ 망부상

전북 정읍의 정읍사 공원은 백제 가요 중 유일하게 전해오고 있는 「정읍사」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이다. 정읍사는 장사를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매일 남편이 떠난 곳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었다는 부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백제 가요로 이 정읍사 공원이 있는 자리가 그 유래지이다.



안녕을 기원하는 가요 한편을 지어  
불렀다. 세상에 전해오기를 고개에  
망부석이 있다 한다.

정읍시에서는 이 일대 67,000여  
평을 공원으로 조성해 정읍사를 기  
리고 있다. 이 공원에는 남편을 기  
다리는 여인의 망부상과 정읍사 노  
래비가 건립되어 있고, 정읍사 예술  
회관, 정읍사 국악원, 시립도서관,  
야외공연장 등이 들어서 있어, 향토  
색 짙고, 수준 높은 지방문화를 창출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  
리매김 되고 있다.

정읍을 여행할 때면 한 번쯤 들러 정읍사의 의미에 대해 되새겨  
보고 또 가볍게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정읍사는 남편이  
무사히 귀가하길 바라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을 노래한 작품으로 소  
리 내어 읽으면 읽을수록 지아비를 향한 애절한 사랑을 느끼게 한  
다.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이 오죽했으면 ‘달아 높이 높이 돋으시어  
멀리 멀리 비취 주소서’ 라고 달빛 속에서 기도했을까.

이 정읍사 속의 여인은 세상 상처로 아픈 이들에게 따스함과 희망  
을 전한다. 여인의 긴 기다림. 정읍에서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내장산단풍부부사랑축제’를 연다. 전통적인 부부사랑에 내장산  
단풍축제를 결합한 형태로 백제 여인의 숭고한 부부사랑과 부덕  
이 서려 있는 정읍사와 천혜의 단풍명소로 유명한 내장산에서 치  
러지는 축제다. 11월 1일 시민의 날 기념식과 연계하여 정읍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정읍사공원은 소백산맥에서 갈라져 나온 노령산맥이 빚어낸 명  
산인 내장산국립공원을 낀 정읍시내 시기 3동에 위치한다.

정읍시는 갑오동학혁명의 주요 무대로 덕천면 황토현 전적지를  
중심으로 고부관아터, 만석보터, 말목장터, 전봉준장군 고택 등 많  
은 관련 유적이 있다.

- 정읍사공원주소 : 정읍시 시기 3동 81-7
- 전화 : 063-539-5180



▲ 정읍국악원



▲ 정읍사공원 약수터

정읍을 여행할 때면 한 번쯤 들러 정  
읍사의 의미에 대해 되새겨 보고 또  
가볍게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곳  
이다. 정읍사는 남편이 무사히 귀가  
하길 바라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을  
노래한 작품으로 소리 내어 읽으면  
읽을수록 지아비를 향한 애절한 사  
랑을 느끼게 한다.



▲ 충렬사 공원 선양루

### 3. 정읍 충렬사 공원

충렬사는 정읍시청 옆 충무공원에 자리하고 있다. 정읍시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성황산 중턱에 있다. 성황산은 그다지 크지 않은 산이다. 현 정읍농고의 동쪽으로 뻗어 내린 산등성이가 거북의 등과 같다 하여 구미등이라 한 것이 마을 이름이 구미동이 되었고, 산은 구미산이라고도 부른다.

이 공원 내에 충렬사가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령을 봉안하기 위하여 창건한 사당이다. 1963년 충무공 탄신일인 4월 28일에 영정을 봉안하여 충렬사라 이름 짓고 공원을 조성했다.

충무공원은 입구부터 산책로가 예쁘게 조성되어 있다. 신록이 우거지는 즈음에 산책하기에 딱 안성맞춤이다. 충무공원에 들어서면 왼쪽으로 홍살문과 선양루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중 일부가 커다란 정원석에 새겨져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던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공원 내 충혼탑 광장에는 이순신 장군 상을 비롯하여 전봉준 장군 상, 항일의병장 임병찬, 백정기 의사 등의 상을 만들어 놓았다. 산 중턱에 있는 요률평에서 앞을 바라보면 가슴이 시원할 정도로 시가지가 한 눈에 들어온다.

이순신 장군은 선조 25년 임진왜란으로 국가와 민족이 위태로울 때, 거북선을 만들어 수많은 해전에서 왜군을 무찔러 나라를 구하는 큰 공을 세운 한국의 가장 위대한 해군 영웅이다.

이순신은 1589년(선조 22)부터 1591년까지 1년 4개월 동안 정읍 현감으로 지냈다. 그 뒤 곧바로 전라좌수사로 발령을 받았다.

이순신의 가문은 대대로 문관의 집안이었다. 그러나 젊은 날 생각한 바 있어 읽던 글을 치우고 무예를 닦아 군인이 됐다. 31살 때 과거에 급제했으나 40이 넘도록 요즘으로 치면 위관급 말직으로만 돌아다녔다.

공의 인품을 전해들은 율곡이 한 번 찾아오라는 연락을 했다. 율곡은 다가오는 국난을 예견하고 ‘10만 양병론’을 주장하였다. 충무공 이순신과 율곡 이이는 남이 아니다. 이들은 덕수이씨 집안의 아저씨와 조카 사이이다. 항렬은 이순신이 아저씨뻘로 높지만 나이는 율곡이 아홉 살이 많다. 하지만 이순신은 ‘일가인데 찾아다니면 공연히 말만 듣는다’며 찾아가지 않았다. 그만큼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처신 때문에 변방으로 돌 수밖에 없었다. 당시 율곡은 정계의 중



▲ 충렬사

충무공원은 입구부터 산책로가 예쁘게 조성되어 있다. 신록이 우거지는 즈음엔 산책하기에 딱 안성맞춤이다. 충무공원에 들어서면 왼쪽으로 홍살문과 선양루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중 일부가 커다란 정원석에 새겨져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 충렬사 효충문



▲ 충훈탑



▲ 충렬사 공원내 박준승묘

진으로 활약하던 때였다.

어쨌건 10만 양병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가 죽은 지 8년 뒤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율곡이 예고했던 7년 대란의 참화에서 나라를 지킨 사람은 바로 충무공 이순신이다. 충무공과 율곡은 기이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 그러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이 나라가 존망의 기로에 섰던 한 시대에 구국의 사명을 다하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벼슬에 나선지 25년만이자 임진왜란 한 해 전인 1591년에야 유성룡의 추천으로 전라좌수사에 임명된다. 그에게는 처음으로 벼슬다운 벼슬이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전열을 정비한 이순신은 옥포 전투를 시작으로 연전연승하며 가는 곳마다 왜적을 무찌른다. 그러나 영웅의 길은 고난과 형극의 길이기도 했다.

1597년 이순신은 모함을 당해 서울로 압송된다.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공이 참작돼 형을 면하고 백의종군토록 명령받았다.

얼마 후 조선 수군이 정유재란 때 참패를 당하자 이순신은 삼도수군통제사로 재기용된다. 그가 없는 사이에 그가 키운 막강 조선 함대는 괴멸되고 12척의 함선과 수백의 병졸만이 남아 있었다. 이를 이끌고 적을 명량으로 유인, 133척의 적선 중 31척을 부수는 대승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전열을 정비한 이순신은 옥포 전투를 시작으로 연전연승하며 가는 곳마다 왜적을 무찌른다. 그러나 영웅의 길은 고난과 형극의 길이기도 했다.





◀ 오륜정

을 거두었다. 이순신은 전쟁이 끝날 무렵인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적을 무찌르고 전사한다.

이때 장군은 “지금은 싸움이 한창이니, 내가 죽었다 말을 내지 말라” 란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 장군의 나이 54세였다.

장군은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을 때에는 병사들의 훈련을 강화하고 군비를 확충하는 한편, 피난민들의 민생을 돌보고 산업을 장려하는 데 힘썼다.

무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시문에도 능하여 『난중일기』와 시조·한시 등 여러 편의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장군과 관련하여 많은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의 삶은 후세의 귀감으로 남아 있다.

이곳 충렬사에서는 공이 이곳 현감으로 있을 때의 덕을 추모하고 그의 명령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탄신일인 4월 28일에 제사를 지낸다.

- 충렬사공원주소 : 정읍시 수성동 615-1
- 전화 : 063-532-9670

“지금은 싸움이 한창이니, 내가 죽었다 말을 내지 말라” 란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 장군의 나이 54세였다. 장군은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을 때에는 병사들의 훈련을 강화하고 군비를 확충하는 한편, 피난민들의 민생을 돌보고 산업을 장려하는 데 힘썼다.



▲ 우도농악전수회관

## 4. 정읍농악과 유지화

정읍지역은 호남우도 농악의 발상지이다.

정읍농악은 마을단위의 지신밟기 형태의 의식과 기원농악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마을마다 전승되어 온 농악이 세습무 집단의 뛰어난 예능과 접합되어 매우 높은 예술적 수준을 보여주면서, 좌도 농악과 함께 한국농악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여 왔다. 그러다가 갑오동학혁명이 일어나면서 군중을 모으고, 세(勢)를 과시하기 위하여 군악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피로 회복 등의 필요에 의해 집단 연예농악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1920년대 보천교(普天敎)의 종교음악으로 채택되면서 더욱 발전하였다. 갑오동학혁명에 깊이 관여했던 차경석 보천교 교주는 농악을 보천교의 종교음악으로 지정하고, 낙성식 때 200여명의 농악 기능인을 초청하여 대대적인 공연을 하는 등 농악을 육성 발전시켰다. 이 때부터 호남우도농악의 기틀이 갖춰지게 되었고, 그 명인들이 각지에





흩어져 전수함으로써 여러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 주로 왕래가 많았던 호남 서해안 평야지방인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익산, 군산, 영광, 함평, 나주, 목포, 광주 등지에서 전파되고, 그 기능을 익히게 되었다. 이에 전라북도는 정읍농악을 무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하여 보호 육성하고 있다.

「정읍농악」은 정읍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정읍에만 그치지 않고 주위의 여러 지역 농악을 두루 포용하여 이루어진 매우 ‘종합적’인 성격의 농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읍우도농악은 쇠꾼이 부모상모를 쓰고 노는 「부포놀이」가 일품인데, 정읍농악의 특징 중 제일로 꼽는다. 밑놀이인 굿가락이 다양하고, 리듬이 다채로우며, 특히 다른 지방에는 없는 유일한 가락인, 「오채질굿」은 2박과 3박이 뒤바뀌며 어우러져 변화를 주는 탁월한 가락이다.

복색이 화려하고, 발림과 대형의 조화로 한 과장을 차지할 정도의 멋을 부릴 수 있는 「고깔 소고놀이」는 정읍농악에서 탄생시킨 걸작(傑作)이다.

각 과장마다 느린 장단으로 시작하여 한껏 여유를 부리며 서서히 빨라져 일진광풍(一陣狂風)이 휘몰아치는 듯, 북아대다가 맺는 기승전결을 갖춘 고도로 발달된 이 지방의 전통예술이다. 농악 판굿 가락 중에서 멋진 가락을 골라 조화롭게 구성, 창작한 「설장구놀이」는 발림과 어울려 차원 높은 예술로 승화되었다.

정읍농악은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3회를 비롯하여 각종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기량(技倆)을 펼쳐오고 있다.

정읍우도농악은 처음 당산굿으로 시작한다. 당산굿은 음력 정월 보름 무렵이나 제의적인 풍물굿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축원굿이다. 당산굿에 이어 펼쳐는 것이 돌당산굿으로 농악패가 다른 마을로 농악을 치러 들어갈 때 마을 동구에서 하는 일종의 준비굿이다.

농악대가 다른 동네에 들어가 풍물굿을 마치고 나올 때 그 마을의 당산에서 하는 굿이 날당산굿이다. 일명 우물굿이라고 불리는 이 샘굿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마을의 공동 우물에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마을의 집집을 돌면서 집안굿을 칠 때 마을 안으로 들어오다가 동네 우물이 있으면 그 곳에서 하는 굿이다.

정읍우도농악은 쇠꾼이 부모상모를 쓰고 노는 「부포놀이」가 일품인데, 정읍농악의 특징 중 제일로 꼽는다. 밑놀이인 굿가락이 다양하고, 리듬이 다채로우며, 특히 다른 지방에는 없는 유일한 가락인, 「오채질굿」은 2박과 3박이 뒤바뀌며 어우러져 변화를 주는 탁월한 가락이다.





## 정음

쌈굿과 함께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문굿이다. 문굿 또한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한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마을굿에서의 문굿인데 먼저 농악패가 길굿을 치며 들어가고자 하는 집의 문앞에 이르면, 상쇠가 사설을 외치고 그것을 쇠가락으로 바뀌치면 나머지 농악대가 그 가락을 받아친다. 다른 하나는 굿패가 다른 마을로 들어가고자 할 때 그 마을의 동구에서 돌당산굿을 친 다음에 굿패의 실력을 선보이기 위한 문굿이다.

문굿 다음에는 마당판굿, 판굿으로 불리는 마당굿이 이어진다. 마당굿 역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마을굿에서 각 집들을 돌면서 마당뽕이를 할 때 집안에 들어가 그 집안의 마당에서 흥겹게 어울려 노는 굿이고, 다른 하나는 굿패가 마을의 큰 광장이나 공터 혹은 큰 굿판에서 마을 전체 또는 그 판 전체의 참여자들과 더불어 자신들의 온갖 기예를 다 보이고 더불어 흥겹게 노는 것으로 보다 크고 전문적인 판굿이다.

이어 도독잡이굿이 이어지며 조왕굿과 철룡굿, 고방굿, 집안쌈굿 등이 펼쳐지는 것이 정음우도농악의 특징이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정음농악」의 보유자 상쇠 유지화(1943. 6. 11~)는 1970년 7월 1일 정음농악단이 설립된 이래 호남우도농악의 보존에 기여해왔다. 그의 역할은 상쇠이다. 원래 전주 태생인 그는 40여 년 동안 농악에 종사했다.

유지화는 「호남우도농악」의 전통을 이어받은 상쇠 박남식과 장구쟁이 이명식으로부터 15세에 농악을 전수받았다. 16세에는 박성근으로부터 뿔과리를 전수받았고 20세에는 김재옥에게 농악 가락을 전수받았다.

유지화에게 뿔과리를 전수한 박남식, 박성근, 김재옥은 다 같이 박만풍, 김도삼의 뿔과리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으로 호남우도농악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사람들이다. 특히 전사섭은 유지화가 20세 되던 해부터 함께 농악활동을 하며 수련한 동료이기도 하다. 이처럼 유지화는 전통 농악가락을 온전하게 전승하고 있다.

1968년 전주 ‘아리랑여성농악단’을 창설했으며 1984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유지화농악단을, 1990년에는 충효국악예술단을 창단해 자신의 예능을 후진에 전수해 왔다.

1993년부터 현재까지 정음시립 정음사국악원에서 농악을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유지화의 진가는 마당이나 무대에서 보여지

유지화는 「호남우도농악」의 전통을 이어받은 상쇠 박남식과 장구쟁이 이명식으로부터 15세에 농악을 전수받았다. 16세에는 박성근으로부터 뿔과리를 전수받았고 20세에는 김재옥에게 농악 가락을 전수받았다.



▲ 정음농악과 유지화



는 가락과 춤에서 더욱 높은 품격을 나타낸다.

유지화 외에 소고의 김종수(1941. 8. 2~)가 1999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정음농악」의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설장고 놀이에 이영상, 세습무의 정통 계승자로 전금순이 있다.

### 김종수(정음농악-소고)

김종수(金種守)는 12살의 소년 시절부터 정음우도농악단에 입단하여 고깔소고의 기능인으로 오늘날 정음농악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는데 그의 지도력이 한 몫을 했다.

이 농악의 소고는 이곳 지역 본래의 전통인 호남우도농악의 고깔소고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호남좌도 채상소고의 예능적인 장점까지를 종합한 점이 큰 특색이다. 김종수의 소고놀음은 우도농악의 장점인 밑놀음과 좌도농악의 윗놀음의 좋은 점들을 종합하여 조화시킨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1977년부터 대통령상 4회, 국무총리상 3회를 비롯하여 전국농악대회 차상, 전국대사습놀이 국무총리상 등을 받았다.

### 이영상(정음농악-설장고)

이영상은 1930년 호남우도농악의 본고장인 정읍시 북면 남산리에서 태어나 13세이던 1942년 당시 마을농악패의 상쇠이던 김광래로부터 농악장구를 익히기 시작해 1945년 설장고의 명인이었던 김병섭을 만나 설장고의 다채로운 가락과 사위를 본격적으로 전수하였다.

1955년 군에서 제대한 후 스승인 김병섭을 모시고 설장고를 전수받아 전래되어 온 설장고춤의 전형을 완성하였다. 1970년부터 서울로 진출하여 설장고의 예술성을 대중화하는데 기여했다.

이영상의 설장고는 호남우도농악의 원형이 가지고 있는 발디딤과 춤사위가 매우 발달하였고 춤사위의 모양새는 밧줄을 타듯이 일자로 구름 위를 걷듯 가볍고 조심스레 디디며 돌음걸음과 까치걸음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영상 설장고의 특징은 우리 전통 예술이 지니는 제일가는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는 장단과 그 가락에 맞는 몸동작의 조화이다. 틀

이영상은 1930년 호남우도농악의 본고장인 정읍시 북면 남산리에서 태어나 13세이던 1942년 당시 마을농악패의 상쇠이던 김광래로부터 농악장구를 익히기 시작해 1945년 설장고의 명인이었던 김병섭을 만나 설장고의 다채로운 가락과 사위를 본격적으로 전수하였다.





## 정음

에 박히지 않고, 몸 가는대로 움직이는, 그러면서도 가락에 맞는 몸놀림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래의 호남우도농악의 정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전금순(당골굿)

집안 대대로 이어져온 무당굿(씻김굿)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하여 평생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전금순은 전북지역 무당굿의 원형인 전통세습 무당굿을 제대로 전승하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이다.

전통세습무 무당굿의 필수요건인 작은굿(앉은반)과 큰굿(선반)을 모두 할 수 있어 전북지역 세습무로서의 계보를 분명하게 갖추고 있다. 또한 정통 세습무인 무가를 모두 기억하고 연행할 수 있는 세습무의 정통 계승자이다.

- 우도농악전수회관주소 : 정읍시 시기 3동 87-2
- 전화 : 063-539-6428

전금순은 집안 대대로 이어져온 무당굿(씻김굿)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하여 평생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전금순은 전북지역 무당굿의 원형인 전통세습 무당굿을 제대로 전승하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이다.







#### ◀ 강광례

강광례는 1933년 전남 강진군 병영면에서 태어났다. 17세에 결혼하였으나 남편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하자, 살길이 막막하여 별님창극단을 따라나선 것이 판소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창극단을 그만두고 전주로 온 강광례는 당시 전통국악원에서 김원술과 김동준에게 소리를 배우게 되면서 본격적인 판소리 수업의 길에 들어선다.

## 5. 강광례와 흥보가

흥보가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이다. 박타령이라고도 불리며, 춘향가와 함께 남원을 지리적 배경으로 하여 만들어진 판소리다. 가진 것 없이 온 가족이 쫓겨난 흥부 가족이, 가난하지만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었다가 보물을 얻어 부자가 되는 흥부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짠 것이다. 대신 부자이나 심술궂은 형 놀부는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서 고쳐주고 얻은 박씨를 심었다가, 박속에서 나온 상전, 놀이패, 장수 따위에게 혼이 난다.

흥보가는 소설 흥부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동리 신재효가 내용을 수정하였다. 다른 판소리보다 익살스러운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리꾼인 권삼득이 「흥보가」를 장기로 삼았다





## 정음

는 것을 보면 오래 전부터 많은 소리꾼들에 의해 불려지고 애호되었던 듯.

소설 흥부전은 욕심 많고 심술궂은 형 놀부와 마음씨 착하고 우애 있는 아우 흥부사이의 갈등이 주된 내용이다. 놀부는 부자로 살면서 아우를 내쫓는다. 쫓겨난 흥부는 갖은 고생을 한다. 어느 날 흥부가 부러진 제비 다리를 고쳐주자 이듬해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었는데, 박씨를 심었더니 열린 박 속에서 온갖 보물이 나와 흥부는 부자가 되었다. 놀부는 더 부자가 되겠다고 억지로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보복을 당한 뒤 개과천선한다는 이야기이다.

역대 명창 중 흥보가에 뛰어났던 사람으로는 권삼득 · 정창업 · 전도성 · 김창환 · 송만갑 · 김정문 등이 있다. 현대의 소리꾼 중에서는 박녹주 · 강도근 · 박동진이 있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바디는 송만갑 바디, 김창환 바디 박초월 바디 등이다.

강광례의 흥보가는 동편제, 박초월 바디의 맥을 잇고 있다. 박초월 바디는, 송홍록 → 송광록 → 송우룡 → 송만갑 → 김정문으로 이어진 소리를 박초월이 계승하여 재창조한 것이다. 똑같이 김정문의 소리를 계승하였으나 강도근의 흥보가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박초월 바디 흥보가의 특색은 장황한 사설을 잘라내 짧아졌다는 점과 계면조의 확대, 서편제 기교의 도입을 들 수 있다. 박초월 바디 흥보가에는 엇부침이 많고 애잔한 면이 많다.

강광례는 1933년 전남 강진군 병영면에서 태어났다. 17세에 결혼하였으나 남편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하자, 살길이 막막하여 별님창극단을 따라나선 것이 판소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창극단을 그만두고 전주로 온 강광례는 당시 전동국악원에서 김원술과 김동준에게 소리를 배우게 되면서 본격적인 판소리 수업의 길에 들어선다.

남원과 정음을 오가며 김용운, 김홍남에게도 소리를 배우던 강광례는 한때 5년여 소리를 그만두었다가, 1979년 최난수에게 「수궁가」와 「흥보가」를 배우면서 다시 판소리를 시작하였다.

본래 목구멍이 좋은데다가 지극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1987년 남원 명창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입상하였고, 이어 1988년에는 광주 남도예술제에서 마침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1989년 김명신의 뒤를 이어 정음국악원의 소리 선생이 되었다. 강광례 외 정음에서 흥보가를 부르는 소리꾼으로 김명신이 있다.

.....  
역대 명창 중 흥보가에 뛰어났던 사람으로는 권삼득 · 정창업 · 전도성 · 김창환 · 송만갑 · 김정문 등이 있다. 현대의 소리꾼 중에서는 박녹주 · 강도근 · 박동진이 있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바디는 송만갑 바디, 김창환 바디 박초월 바디 등이다.  
.....





## 김명신(판소리-홍보가)

1946년 전라남도 화순에서 태어난 김연임(金連任)은 15세때부터 오수암의 문하에서 소리를 배우기 시작하여 정광수, 임준옥, 최난수, 오정숙으로부터 수궁가, 홍보가,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 등 판소리 다섯 바탕을 이수하였다. 1987년 춘향가를 시작으로 심청가, 홍보가, 적벽가 등 판소리 네 바탕의 완창발표회를 가진 적이 있다. 2002년 공주 백제문화제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불시에 찾아온 암을 극복하였으며 또 소리꾼으로서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성대 결절을 겪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판소리 전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연임은 소리의 득음이나 공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그의 홍보가는 일반적인 것보다 2시간 가량 길고 홍보가 뒤에 놀부가가 더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역대 명창 중 홍보가에 뛰어났던 사람으로는 권삼득·정창업·전도성·김창환·송만갑·김정문 등이 있다. 현대의 소리꾼 중에서는 박녹주·강도근·박동진이 있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바다는 송만갑 바디, 김창환 바디 박초월 바디 등이다.  
.....





▲ 김동수 가옥 전경

## 6. 조선시대 호남상류층 가옥, 김동수 가옥

김동수 가옥(중요민속자료 제26호)은 정조 시대인 1784년에 지어진 집으로, 김동수 씨의 6대조인 김명관(金命寬)이 17세가 되던 해에 짓기 시작하여 10여년 만에 완성했다고 한다.

이곳에 가려면 호남고속도로 태인 나들목을 벗어나 30번 국도 칠보면 방향으로 접어들면 된다. 칠보 소재지에서 산외면을 미쳐 못한 2.5km 지점에 '김동수 가옥'이라는 표지판이 서 있다. 여기에 서 왼쪽으로 꺾어 400m 가면 울창한 느티나무 숲 속에 있다.

오공리,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에 터를 잡은 김동수 가옥은 개울을 건너면 왼쪽으로 큰 연못이 있고, 조금 더 가면 대문이다. 대문앞을 조금 비켜 머슴집이 있고, 대문을 들어서면 문지기방, 곳간, 뒷간이 있고 이어 안채, 사랑채, 창고, 사당, 하인집과 원래는 목수들이 집을 지을 때 쓰던 방이었으나 뒤에 외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주





방을 겸한 집까지 88칸이 아직까지도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집터를 말할 때, 특히 이런 큰집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풍수 얘기일 터다. 풍수자들은 이 집터를 평사낙안(平沙落雁·백사장에 기러기가 내려앉는 형상으로 부귀가 끊이지 않을 곳) 형국이라 한다. 또 어떤 이는 호남지방의 대표적인 ‘지네 명당’으로 보기도 한다. 이 고가는 지네의 두 이빨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뒷산은 지네의 머리고, 능선이 몸통이며, 대문 앞에 연못은 지네가 습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러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아름드리 고목들도 습지를 좋아하는 지네를 위해 일부러 심은 것이다. 지네는 먹이를 두 이빨로 물려고 할 때 기가 가장 강하다고 한다. 마을 이름도 원래는 ‘지네 오’, ‘지네 공’ 자를 쓴 오공리(蜈蚣里)였다.

남북의 긴 형태로 지어진 김동수 가옥은 소박하면서도 세련된 아름다움을 갖춰 한국의 전통성을 살린 가옥이다. 나지막한 건물과 군더더기 없는 마당, 휘어진 나무를 그대로 건축자재로 쓴 행랑, 그리고 단정한 하나의 선으로 사랑채 건물의 멋을 살려주는 사랑채 난간 등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적정의 수준을 지켜주는 걸작으로 일컫는다.

뒷산인 청하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동진강 상류의 맑은 물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을 이룬다. 대문을 들어서면 대개가 사랑마당으로 직접 진입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 가옥의 배치와 달리 담으로 둘러싸인 문간마당을 둘러싸고 들어서면 다시 중문을 지나 사랑마당으로 들어서도록 각 채를 분할하는 담장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문은 평대문과 달리 양 옆쪽의 담장의 높이보다 솟아올



▲ 호지집(머슴집)



▲ 사랑채



▶ 안행랑채



▲ 안채

조선시대 양반들의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는 곳으로 비교적 섬약한 부재를 사용하였고, 소박한 구조 같으면서 대문간에서 안채까지의 공간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옥 건축의 아름다움과 조선시대 호남 상류층 가옥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라 있는 솟을대문이다.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좁은 마당이 나오고 중문을 거치면 바깥 행랑채가 나온다. 다시 바깥 행랑채의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아담한 사랑채가 보이고 안행랑채의 안대문을 들어서면 6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대청으로 배치된 방들이 있으며, 좌우 앞쪽으로 돌출된 부분에 부엌을 날개처럼 배치한 특이한 평면의 안채가 있다.

안채의 서남쪽에는 안사랑채가 있는데, 본채를 지을 때 김명관이 목수들과 임시로 거쳐하기 위한 건물로 지은 것이다. 마당의 크기와 위치, 대문간에서 안채에 이르는 동선의 관계가 뛰어나다. 특히 안마당은 ㄷ자집 형태의 안채 내부 마당과 안 행랑채 사이의 긴 가로마당이 만나서 아늑함이 느껴진다. 처마의 흐름이나 기둥의 배열 등이 소박하면서도, 세련된 한옥의 아름답고 멋스러운 모습을 선사하며 찾는 이의 마음에 안식을 베푼다.

이곳은 조선시대 양반들의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는 곳으로 비교적 섬약한 부재를 사용하였고, 소박한 구조 같으면서 대문간에서 안채까지의 공간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옥 건축의 아름다움과 조선시대 호남 상류층 가옥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목욕리 내목 마을엔 정읍에서는 유일하게 솟대 신앙이 행해지고 있으며, 오공리 야정 마을에는 대한제국시기 의병장이었던 면암 최익현과 둔헌 임병찬을 모신 사당이 있다.

● 김동수가옥주소 :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814

● 전화 : 063-539-5200



▲ 안사랑채



▲ 사당





▲ 백정기의사 기념관 전경

## 7. 백정기 의사 기념관

윤봉길, 이봉창과 함께 3의사 중 한명으로 꼽히는 백정기는 윤봉길이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킨 날, 윤봉길보다 먼저 폭탄을 던지려고 준비했다.

당시 그는 '남화연맹'이라는 독립운동단체 소속의 회원으로 윤봉길은 11시에 폭탄을 던질 예정이었지만, 백정기는 그보다 한 시간 빠른 10시에 거사를 일으키려고 했다. 그런데 행사장에 들어갈 출입증을 구해줄기로 약속한 중국인이 웬일인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예정된 시간은 지나가 버렸고, 윤봉길의사가 그 거사를 성공시켰다.

백정기의 국가에 대한 소신에 비장함이 묻어난다. “나의 구국일념은 첫째, 강도 일제(日帝)로부터 주권과 독립을 쟁취함이요. 둘째, 전세계 독재자를 타도하여 자유·평화 위에 세계 일가(一家)의 인류 공존을 이룩함이니 왜적 거두의 몰살은 나에게 맡겨 주시오.”



## 정읍

백정기 의사 기념관은 전북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928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백정기의사가 1934년 6월 5일 39세의 나이로 서거한 지 70주년을 맞아 기념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총 부지면적은 6,6307평으로 기념관에는 백정기의사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는 의열사, 백정기의사의 활동상을 전시하는 구파기념관, 역사의 산교육장인 청의당 강당, 백정기의사의 민족의식과 조국 광복을 위해 순국하신 고귀한 뜻을 새기기 위한 의열문, 의사의 애국정신과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승의문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백정기의사를 형상화 한 동상, 어록비, 순국비, 추모비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본 기념관 입구에는 관람객을 위한 휴식공간과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백정기(1886~1934) 의사는 1896년 1월 19일 부안군 남하면 내진리에서 아버지 백사순(白士順)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7세 되던 해에 정읍으로 이사하였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빈한한 농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호는 구파(鷗波), 자는 용선(溶善). 가정환경이 어려워 주경야독 하였지만 남달리 총명하여 사서삼경은 물론 신학문에 능통하였다.

15세가 되던 해 우리나라가 강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경술국치를 당하면서 소년의 가슴에도 일제에 대한 울분과 이에 대한 저항 의식 및 구국일념이 자리 잡았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고 향리인 정읍으로 내려와 만세시위를 선도하였고, 동지들과 서울, 인천을 오가며 일제 기관의 파괴와 방화, 요인암살 등을 계획하다 일경의 추격을 받고 그해 8월 중국 봉천(奉天)에 망명하였다.

중국을 근거지로 수차례 국내를 왕래하며 군자금 모집하는 등 활동을 펴다 일제 경찰에 1차 구금되었으나, 의사의 기지로 무사히 나와 1922년에 북경(北京)으로 재차 망명한다.

1924년 일본 동경에 잠입하여 은신하면서 동지를 규합하여 일왕 처단과 수력발전소 파괴 등을 계획하였으나 불의의 관동대지진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북경으로 다시 돌아왔다. 북경에 온 의사는 이회영(李會榮), 신채호(申采浩) 등을 만나고 크게 감화되었다.

1928년 9월 남경(南京)에서 동방무정부주의자동맹이 조직되었는데 의사는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였다. 의사는 기관지 『동방(東方)』의 편찬위원으로 활동 중 과로로 인해 폐병을 얻어 북경에서 잠시 요양을 하였다. 요양하는 중에도 동지들과 같이

백정기(1886~1934) 의사는 1896년 1월 19일 부안군 남하면 내진리에서 아버지 백사순(白士順)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7세 되던 해에 정읍으로 이사하였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빈한한 농가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호는 구파(鷗波), 자는 용선(溶善). 가정환경이 어려워 주경야독 하였지만 남달리 총명하여 사서삼경은 물론 신학문에도 능통하였다.



▲ 백정기 의사 동상



▲ 의열사



남화한인청년연맹을 조직하고, 1930년 길림성 해림시로 가서 김 종진, 이강훈 등과 같이 김좌진, 이을규 등이 조직한 한족총연합 회에 가담하였다.

1931년 9·18사변이 일어나자 의사는 북경을 거쳐 상해로 들어와 남화한인청년연맹의 산하 단체로 남화구락부를 두는 한편 중국인 동지들과 항일구국연맹을 조직하여 한중공동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의 실행을 위해 행동대를 편성하였는데 흑색공포단(黑色恐怖團)이라 불렸다.

흑색공포단은 토의 후 곧장 실력행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유명했다. 곳곳의 일본영사관을 습격하여 방화 또는 파괴하였다. 특히 천진(天津)에서는 중국인과 이강훈, 원심창(元心昌) 등과 같이 일본의 군수물자를 싣고 들어온 일본군함 만톤급 1척을 대파시키는 큰 전과를 세워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주었다.

1933년 의사는 상해 육삼정(六三亭)이라는 고급일식점에서 일본 군부의 거물들이 중국의 군 장성들과 회합을 갖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이 회의는 항일유격대와 독립군을 탄압시키고자 하는 회의였다. 연맹은 곧 회의를 소집하고 이에 대응할 대원을 뽑았다. 이때, 의사가 스스로 강력히 요청하여 이강훈, 원심창 등과 함께 육

1933년 의사는 상해 육삼정(六三亭)이라는 고급일식점에서 일본 군부의 거물들이 중국의 군 장성들과 회합을 갖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이 회의는 항일유격대와 독립군을 탄압시키고자 하는 회의였다. 연맹은 곧 회의를 소집하고 이에 대응할 대원을 뽑았다.



◀ 백정기 의사 기념관





◀ 기념관 내부 모습

거사 직전 체포되어 상해에서 취조를 받은 후 같은 해 7월 5일 일본 장기(長岐)로 압송되었다. 무기형을 선고받고 일본 나가사끼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조국 독립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1934년 6월 5일 39세를 일기로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삼정에 폭탄을 던져 왜적을 처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때 사용할 폭탄은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거 때 사용되었던 것과 동형으로 백범 김구(白凡 金九) 주석이 주고 간 것이었다.

하지만 거사 직전 체포되어 상해에서 취조를 받은 후 같은 해 7월 5일 일본 장기(長岐)로 압송되었다. 무기형을 선고받고 일본 나가사끼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조국 독립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1934년 6월 5일 39세를 일기로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7월 6일 의사의 유해는 조국으로 옮겨져 전 국민의 애도 속에 국민장을 치렀다. 유해는 효창공원에 있는 의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1963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의사 기념관 주변에는 유선사, 전봉준 선생 고택지, 말목장터와 감나무 유적지, 황토현전적지, 만석보유적지 등이 있다.

- 백정기의사기념관주소: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928
- 전화: 063-535-7815





## 8. 피향정

### ▲ 피향정

피향정(披香亭)은 후기신라 정강왕(定康王, 886~887) 때 태산의 태수였던 최치원이 세웠으며, 그가 재직 중에 소요하던 곳이었다. 자연을 벗 삼아 쉽터로 사용하고자 지은 피향정은 호남지방에서 으뜸가는 정자 건축이다.

이 정자는 정자의 앞뒤로 꽃이 피면 주위가 장관을 이루고 연꽃의 향기가 정자에 가득하다고 하여 피향정이라 하였다고 한다. 특히 이 정자는 앞뒤로 상연지, 하연지 두 개의 연지가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었으나 현재는 하연지만 남아 있다. 또 피향정은 원래 커다란 연못 속에 세워져 있었으나, 현재는 연못이 메워져 있어 본래의 정취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 광해군 때 현감 이지평이 다시 짓고 현종 때 현감 박승고가 건물을 넓혔으며, 1716년(숙종 42) 현감 유근(柳近)



## 정음

이 또 증축했다고 전해진다. 그 뒤에도 몇 차례 부분적으로 고쳤는데 단청은 1974년에 다시 칠한 것이다.

이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규모로서 정자로서는 매우 큰 규모이다. 평면은 외진주 안에 다시 내진주를 세워 공간을 구획하였는데 정면 3칸, 측면 2칸의 내진 주위로 사방에 돌아가며 퇴가 둘러진 형태이다.

정자의 바닥은 지상으로부터 142cm 정도 떨어져 막돌 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그 위에 석조로 된 28개의 짧은 두리기둥을 놓고, 다시 그 위에 목조로 된 두리기둥을 세워 만든 누각 형식의 건물이다.

자연석 외벽대의 낮은 기단 위에 커다란 초석받침을 놓고 장초석을 세웠는데 위로 갈수록 직경이 좁아지도록 흘림을 주었다.

여느 정자는 기둥의 배치에 따라 평면이 내외진으로 나뉘어 있지만 피향정 내부는 모두 하나의 공간으로 터져 있다. 그러나 향우측 내진 기둥에는 인방들이 끼워져 있던 흔적이 남아 있다. 다른 공간과 다르게 이 부분만 천장이 낮게 구성되어 있어 별도로 실이 구획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건물의 천장은 지붕 재료가 흰히 보이는 연등천장이지만 천장 일부를 가리기 위해 건물 좌우 사이를 우물천장으로 꾸민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이 누정을 거쳐 간 시인과 선비들의 시가(詩歌)를 기록한 현판이 건물의 품격을 더하고 있다.

‘호남제일정’이란 현판은 그만큼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큰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듯하다. 조선시대 대표가 되는 정자 중 하나로 조선 중기의 목조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어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문화재이다.

건물의 천장은 지붕 재료가 흰히 보이는 연등천장이지만 천장 일부를 가리기 위해 건물 좌우 사이를 우물천장으로 꾸민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이 누정을 거쳐 간 시인과 선비들의 시가(詩歌)를 기록한 현판이 건물의 품격을 더하고 있다.



▲ 피향정 앞 연지

▼ 피향정(북쪽) (좌)

▼ 피향정(남쪽) (우)





### 피향정내 고비군(태인 태창리 비석군)

피향정 안에 파손된 3기를 포함하여 모두 19기의 옛 비석이 있다. 피향정 경내에 있는 16기 석비 가운데 이서구(李書九) 홍범식(洪範植) 이외의 비석은 1970년경에 부근에서 옮겨 세운 것이다.

피향정이 있는 태인면은 과거 태인현의 읍치가 있던 곳으로 많은 문화재들이 산재하여 있다. 태인동헌, 태인향교 대성전 등이다. 태인은 단종왕비 정순왕후와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피향정이 있는 태인면은 과거 태인현의 읍치가 있던 곳으로 많은 문화재들이 산재하여 있다. 태인동헌, 태인향교 대성전 등이다. 태인은 단종왕비 정순왕후와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



◀ 피향정 내 고비군





▲ 무형문화재 보유자 송명섭

## 9. 정음술 죽력고와 송명섭

죽력고(竹瀝膏)는 대나무가 많이 나는 전라도에서 빗어 내려오던 독특한 술이다. 주(酒)자를 쓰지 않고 고(膏)자를 쓰는 것부터가 심상치 않다. ‘고’는 최고급 약소주에만 붙일 수 있는 술의 극존칭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죽력고는 1766년에 유중림이 쓴 『증보산림경제』와 1827년 서유구가 쓴 『임원십육지』에 기록되어 있다. 주로 대나무가 많은 전라도 지방에서 빗은 고급 소주로서 중풍으로 신체가 마비될 때 약으로 썼다고 전해진다. 육당 최남선이 쓴 『조선상식문답』을 보면 조선 3대 명주로 평양의 감홍로, 전주의 이강주와 함께 죽력고를 꼽았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김치를 담아먹는 것처럼 술도 집에서 빗어 명절을 지내고 손님을 접대하였다. 그러나 일제시대 밀주 단속과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가게를 통해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해 왔다. 특히 주



▲ 죽력고

세법 도입 이후 가정에서 만들던 가양주들이 밀주로 몰려 긴 세월을 음지에서 떠돌았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전통 가양주가 사라졌다.

죽력고도 그렇게 사라진 술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2002년 국순당에서 주관하고 농림부와 중앙일보에서 후원한 ‘아름다운 우리 술을 찾습니다’ 공모전에서 죽력고가 제조의 전통기법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그 이름이 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죽력고의 기능 보유자 송명섭 씨(무형문화재)는 외할아버지가 한약방을 운영했다고 한다. 한약방에서는 약으로 술을 빚기도 하였는데 죽력고는 물론이고 복분자주, 호마주 등이 전해 내려왔다. 이런 약술 빚는 법이 송명섭 씨의 어머니에게 전해지고 양조장집으로 시집온 어머니에 의해서 송명섭 씨에게 전수된 것이다. 오랫동안 밀주단속을 피해 한약방에서 약으로 그 명맥을 이어온 것이다.

죽력고는 연노란 빛깔이 고운 술이다. 죽력의 아릿한 맛과 높은 도수의 증류주가 주는 강렬함이 매우 인상 깊다. 죽력고를 빚는 일은 무척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술을 빚기 위해서는 먼저 죽력을 준비해야 한다. 죽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나무를 가득 채운 항아리에 3일 밤낮으로 불을 지피 대나무의 진액을 뽑아낸다.

약 기운 강한 죽력고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일정 정도 이상 취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는 사우나를 한 듯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몸이 가뿐하다.

죽력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잘 발효된 청주이다. 청주와 죽력, 솔잎, 창포 등을 소줏고리에 넣고 증류를 시켜서 죽력고를 만들어낸다. 송명섭 씨는 지금도 현대화된 증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조상들이 사용하던 소줏고리를 이용하여 죽력고를 내리고 있다. 청주를 만드는 데도 재래 누룩을 사용하는 전통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처럼 전래의 방식으로 빚어지는 죽력고는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

참쌀과 누룩으로 전술을 빚는데 다른 술과는 달리 전술을 20일 정도 발효시켜 양금이 가라앉을 때까지 놓아둔다. 이렇게 용수를 박지 않고 전술을 만드는 것은 그만의 독특한 방법이다.

술덧이 다 되면 집 근처에 있는 대나무와 시누대의 마디를 잘라 항아리에 담는다. 대나무가 담긴 항아리는 뚜껑이 아래로 가게 땅에 박아두고 불을 지핀다. 처음에는 콩대 그리고 왕겨를 알맞게 땀다. 죽력고를 만드는 방법은 까다롭기 이를 데 없는데, 시간과 온도를 맞추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너무 불을 세게 때도 안 되고 너무



▲ 송명섭씨의 모친 은계정 여사

죽력고의 기능 보유자 송명섭 씨(무형문화재)는 외할아버지가 한약방을 운영했다고 한다. 한약방에서는 약으로 술을 빚기도 하였는데 죽력고는 물론이고 복분자주, 호마주 등이 전해 내려왔다. 이런 약술 빚는 법이 송명섭 씨의 어머니에게 전해지고 양조장집으로 시집온 어머니에 의해서 송명섭 씨에게 전수된 것이다.



오래 불을 때도 안 된다.

불이 꺼진 항아리 뚜껑에는 진한 녹색의 대나무 진액인 죽력이 받아들인다. 이 죽력을 대나무 잎에 채서 대나무, 솔잎, 대나무 숯과 함께 소줏고리에 넣는다. 이 소줏고리를 이용해 술을 내리는데 낮은 불에서 오랫동안 내려야 은은한 풀색의 죽력고가 만들어진다. 전술 3말이면 증령고 7되 정도를 내릴 수 있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다 만들어진 죽력고는 연한 풀색이다. 대나무에서 나왔지만 대나무 빛도 아니고 청자 빛보다는 옅지만 그 은은한 색이 청자의 고귀함을 닮았다.

죽력고의 알코올 도수는 30~35도 사이. 도수가 그리 높은 술은 아니지만 술맛은 대나무의 곧은 성품을 닮은 듯 직선적이다. 입에서 부드럽게, 그리고 빠르게 퍼지는 술이 자꾸 술잔에 입을 대게 한다. 여기에 꿀을 섞어 마시기도 한다니 누구라도 이 술과 함께 한다면 쉽게 술자리에서 헤어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죽력고는 만드는 방법만 까다로운 게 아니다. 맛을 음미하는 데도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술을 마실 때는 눈으로 마시고, 코로 마시고, 입으로 마시는 색(色)·향(香)·미(味)의 단계를 밟는다던가. 죽력고는 어느 한 단계에서도 소홀함이 없는 술이다. 또 단순히 맛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의 풍물과 음식, 문화와 함께 해야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 죽력고는 서울로 압송되던 전봉준 장군이 마지막 찾은 술로도 유명하다.

- 양조장주소 : 정읍시 태인면
- 전화 : 063-534-4018



▲ 죽력고 재료

죽력고는 만드는 방법만 까다로운 게 아니다. 맛을 음미하는 데도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술을 마실 때는 눈으로 마시고, 코로 마시고, 입으로 마시는 색(色)·향(香)·미(味)의 단계를 밟는다던가. 죽력고는 어느 한 단계에서도 소홀함이 없는 술이다.

◀ 죽력고 내리는 장면



▲ 정읍 배들평(이평)

## 10. 말목장터, 만석보 유지비

말목장터는 부안, 태인, 정읍으로 가는 길이 만나는 삼거리에 있는 장터로 서산의 마방, 서울의 말죽거리 등과 함께 말의 쉼터 시설을 갖춘 꽤 큰 장터였다. 원래 농민들이 각종 생활필수품과 농산물을 팔고 사는 시장이었다. ‘말목’이라는 이름은 생긴 형상이 말의 목부분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장터는 농민군이 고부 관아로 가기 전, 처음 집결했던 곳으로서 의미가 깊다. 1893년 11월 초순, 전봉준 등 19명의 농민지도자들은 죽산마을 송두호의 집에 모여 봉기를 모의하고 격문과 행동 목표를 쓴 사발통문을 작성했다. 11월 30일 익산 군수로 발령을 받은 조병갑이 뒷손을 써서 다시 고부 군수로 부임하게 된 것이 농민들의 불만을 촉발했다.

1894년 1월 10일 밤, 미리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배들평(이평) 말



목장터로 모여 20여리 떨어진 관아까지 가는 동안 농민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났다. 그리고 11일 새벽, 별 힘들이지 않고 농민군은 고부 관아를 점령했다. 이것이 동학농민봉기의 시작이었다.

말목장터는 제1차 백산기포를 할 때까지 장두청을 두고 진을 설치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 장터에는 수령이 180년 정도 된 감나무가 있었다. 전봉준 장군은 이 감나무 아래에서 말목장터에 모여든 농민들에게 군수 조병갑의 탐학과 농민 수탈의 실정을 알렸다. 모여든 동학혁명군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고 난 뒤, 장군은 그 곳에서 있던 감나무에 잠시 기대어 앉았다. 그러자 감나무 가지가 장군을 보호하려는 듯 가지를 아래로 내렸다고 전해진다.

이곳 주민들은 지금도 이 감나무의 감은 따지 않는다. 가지를 내려 전봉준 장군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을 보듬고 있는 이 감나무는 지방기념물 제110호로 지정되었다. 이 나무는 태풍 매미 때 밀동이 부러져 지금은 황토현 동학혁명기념관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그 자리에는 새 감나무 한 그루를 심어 명맥을 잇고 있다.

또 이평은 원래 동진강을 통해 이곳까지 배가 들어온다고 해서 배들평이라 불렀다. 일제 때 일본인들이 배나무가 있는 곳으로 오해해 이평으로 표기한 후 지금까지 굳어진 것이다.

1994년 정부는 갑오농민전쟁 100주년을 기념해 장터에 정자를 짓고, 삼오정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이화 선생이 농민 봉기의 현장인데, 양반 문화의 상징인 삼강오륜을 딴 정자 이름이 맞지 않는다고 항의해 말목정으로 바꾸게 했다.

이곳 주민들은 지금도 이 감나무의 감은 따지 않는다. 가지를 내려 전봉준 장군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을 보듬고 있는 이 감나무는 지방기념물 제110호로 지정되었다. 이 나무는 태풍 매미 때 밀동이 부러져 지금은 황토현 동학혁명기념관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그 자리에는 새 감나무 한 그루를 심어 명맥을 잇고 있다.



◀ 정읍 이평 말목장터



장터의 말목정이 그날, 전봉준 장군의 통분과 민초들의 합성을 대변하고 있다.

### 만석보터(만석보유지비: 萬石湫遺址)

만석보 터는 전라북도 정읍 이평면 팔선리에 있는 조선 말기의 보(湫)가 있던 자리이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돼 있다. 원래 정읍천 아래에는 배들평 농민들이 쌓은 만석보(萬石湫)가 있었다. 만석보는 광산보 또는 예동보라고도 했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이 보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배들평에는 풍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여 만석보라고 불렀다. 한데 1892년 5월 고부 군수로 부임해 온 조병갑은 이 만석보 바로 아래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새로 보를 쌓게 했다.

그러나 새 만석보는 너무 높아서 홍수가 지면 오히려 냇물이 범람하여 상류의 논들이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보를 쌓은 첫 해에는 수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조병갑은 좋은 논은 2두, 나쁜 논은 1두씩을 받아 예동, 두전, 백산에 700여 석을 쌓아 놓았다.

그 무렵 삼남(전라·경상·충청)지방에 가뭄이 계속되어, 보세를 감해 달라고 관아로 간 농민들은 매만 맞고 나왔다. 이로 인해 1894년 정월에 전봉준을 선두로 한 농민들이 만석보를 때려 부숨으로써

전라북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돼 있다. 원래 정읍천 아래에는 배들평 농민들이 쌓은 만석보(萬石湫)가 있었다. 만석보는 광산보 또는 예동보라고도 했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이 보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배들평에는 풍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여 만석보라고 불렀다.



◀ 만석보터와 만석보유지비



## 정읍

갑오농민전쟁의 발단이 되었다.

현재 서 있는 만석보유지비는 1973년 동빈 김상기 선생이 주도한 동학혁명기념사업회에서 세운 것으로 글씨는 전주의 서예가인 강암 송성룡 선생이 썼다. 폐허에는 본래 ‘지(址)’ 자만 쓰는 게 보통이다. 백산성터는 백산성지이고, 변산의 실상사터는 실상사지이다. 그렇게 되면 이 만석보터는 ‘만석보지(萬石湫址)’가 되나, 이렇게 쓰면 발음하기가 힘들다 하여 선생이 ‘유(遺)’ 자를 더 넣은 것을 정부에서 한글로 고정시킨 것이다.

신태인에서 고부로 가는 약 4km 지점, 동진강을 건너는 다리 하류에 붓둑을 쌓았던 흔적이 있다. 주변에 황토현 전적지,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관, 만석보유지비, 전봉준 장군 고택 등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 ● 만석보유지주소: 정읍시 이평면 하승리



현재 서 있는 만석보유지비는 1973년 동빈 김상기 선생이 주도한 동학혁명기념사업회에서 세운 것으로 글씨는 전주의 서예가인 강암 송성룡 선생이 썼다. 폐허에는 본래 ‘지(址)’ 자만 쓰는 게 보통이다. 백산성터는 백산성지이고, 변산의 실상사터는 실상사지이다.

### ◀ 정읍 이평 예동미를 만석보 혁파비







▲ 고부향교

## 11. 고부관아터, 고부향교

고부는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되는 고부 봉기의 중심 지역이었다. 그 중심에 고부 관아가 있다. 고부 관아는 고부군수 조병갑 학정의 표상으로 고부 봉기 때 농민군에 의해 점령된 곳이지만, 지금 그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지금의 고부초등학교의 자리가 옛 고부 관아터이며 학교 바로 옆은 향교이다. 운동장 한편에 쓸쓸하게 남아 있는 초석, 기단석 등이 이곳이 역사적 현장이었음을 무언으로 대변하고 있다.

관아터(현 고부초등학교 자리)는 1765년(영조 41) 성황산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1914년 부군제 실시에 따라 정읍군에 편입될 때까지 고부 관아가 있었던 곳으로 동학농민혁명의 발단이 되었던 1894년 1월 10일 고부봉기 때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군이 점령하여 탐관오리를 몰아냈던 역사적 현장이다.



고부초등학교가 들어서면서 관아 건물은 전부 철거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통문화 유산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말살하려는 일제의 만행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오늘날 고부는 정읍시에 딸린 면이지만 갑오년 당시에는 인근 지역 쌀의 집산지이자 상업의 중심지로서 정읍보다 큰 고을이었다. 봉건 관리들의 탐학이 극에 달했던 상황에서 고을의 물산이 풍부하고 번성했다는 것은 곧 관리에게 뜯길 일이 많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주민의 고달픔을 더해주는 일이었다.

민란 당시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趙秉甲)은 본관은 양주, 영의정 조두순(趙斗淳)의 서질(庶姪)이다.

여러 주군(州郡)의 수령을 거쳐 1892년(고종 29) 4월 고부군수가 되었다. 부임한 이래 갖가지 명목으로 탐학과 비행을 저질렀다. 농민에게 면세를 약속하고 황무지의 개간을 허가해 주고는 추수기에 강제로 세를 징수했고, 부민(富民)을 붙잡아 들어 불효·불목·음행·잡기 등의 죄명을 씌워 그들의 재물 2만여 냥을 빼앗았다. 대동미를 쌀 대신에 돈으로 거두고 그것으로 질이 나쁜 쌀을 사서 중앙에 상납하고 차액을 착복했다.

또한 세곡을 운송하는 전운소(轉運所)에서 추가로 쌀을 징수하고 부족미(不足米) 명목으로 또 거두었다. 묵은 땅을 개간하여 면세가 되어야 할 땅에서 세금을 거두었으며, 태인 현감을 지낸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운다고 1,000여 냥을 거두었다.

고부는 정읍시에 딸린 면이지만 갑오년 당시에는 인근 지역 쌀의 집산지이자 상업의 중심지로서 정읍보다 큰 고을이었다. 봉건 관리들의 탐학이 극에 달했던 상황에서 고을의 물산이 풍부하고 번성했다는 것은 곧 관리에게 뜯길 일이 많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주민의 고달픔을 더해주는 일이었다.



◀ 고부 관아터(고부초등학교)

특히 고부읍 북쪽에 흐르는 동진강에 있던 만석보가 파손되지 않았는데 농민들을 동원하여 그 밑에 새 보를 쌓게 하고, 세금을 징수해 쌀 700여 석을 사취했다.

그러나 조병갑을 이어 고부군수로 발령받은 자들이 계속 다른 곳으로 재 발령되거나, 병으로 오지 못하게 되자 이듬해 1월 9일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다시 임명되었다. 이에 항거해 그해 1월 11일 전봉준을 지도자로 하는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농민들이 고부관을 습격하자, 그는 전 부사 정 모의 집에 숨어 있다가 옷을 바꿔 입고 정읍을 거쳐 전주로 도망쳐 관찰사 김문현(金文鉉)에게 농민항쟁을 보고했다.

관아 옆에 있던 고부향교는 읍성의 서쪽에 있었으나 임진란(壬辰亂)때 불타 없어지고, 1597년(선조 30)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 세워졌다고 한다. 이곳은 마구간과 옥(獄)이 아래쪽 머지않은 곳에 있기에, 그 뒤부터 운이 쇠퇴하여 인재가 나오지 않는다는 설이 있다. 마구간과 옥(獄)은 천한 것인데 이것들이 향교의 주맥을 누르고 있기 때문이란단다.

● **고부향교주소 : 고부면 고부리**





▲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전경

## 12.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황토현전적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1894년 반부패, 반외세의 기치를 들고 봉기한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을 중심으로 수많은 동학농민군 등이 전주 감영에서 파견한 관군을 크게 이긴 최초의 전승지인 황토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

기념관 입구 유리관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전구들은 동학혁명에 참여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민초들을 상징하는 듯,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 8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황토현(黃土峴)은 현재의 행정 구역상으로 정읍군 덕천면 하학리와 이평면 도계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35m 정도의 나지막한 구릉이다.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맞아 처음 크게 승리한 곳이 이곳 황토현이다.



1894년 3월 20일, 40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무장에서 전봉준(全琫準)·손화중(孫化中)·김개남(金開男) 등 동학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꺾기했다. 이들은 태인 주산리에서 태인접주 최경선(崔敬善)이 이끄는 300여 명의 농민군과 말목장터에 집결해 있던 수백 명의 농민군이 합세하여 고부 관아를 점령하였다.

고부 관아를 점령한 농민군들은 4일간 머물며 화약고를 불태우는 등 폐정을 혁파한 뒤, 3월 25일경 백산(白山)으로 진출하였다. 백산은 고부 관아로부터 북쪽에 있는 높이 50m도 되지 않는 작은 언덕이었으나 인근의 곡창지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요새지였다.

농민군이 백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인근 부안·고창 등 여러 읍의 동학농민군이 속속 집결하였다. 그래서 농민군 진영에서는 전봉준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손화중·김개남을 총관령으로, 또 최경선을 영술장에 임명하는 등 진영을 확대·개편하였다.

또한, 창의를 뜻을 밝히는 ‘사대명의(四大名義)’를 발표하고, 민중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하는 격문을 전국에 띄웠다. 그 뒤 4월 1일 태인, 4월 4일 부안관아 등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한편 당시 전라감사 김문현은 무장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들이 고부를 점령하고 백산에 집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이를 의정부에 보고하는 한편, 이서와 군교를 풀어 전주성의 서문과 남문을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무남영의 영관 이경호로 하여금 무남영의 군대와 잡색, 각 읍에서 올라온 포군(砲軍)을 거느리고 금구 대



▲ 동학농민혁명 전시실



황토현(黃土峴)은 현재의 행정 구역 상으로 정읍군 덕천면 하학리와 이평면 도계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35m 정도의 나지막한 구릉이다.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맞아 처음 크게 승리한 곳이 이곳 황토현이다.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로로 나가 동학농민군의 진격을 막도록 조치하였다.

그런데 4월 4일 부안관아를 점령하여 무기고를 열고 무장을 강화한 농민군 1만여 명은 진라감영군이 농민군을 진압하러 내려온다는 정보를 듣자, 전주를 향해가던 진로를 바꾸어 부안과 고부의 접경지대에 근접한 성황산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때 무남영병 700여 명과 보부상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향병 600여 명은 원평·태인을 거쳐 백산 부근까지 진출하였다. 드디어 4월 6일 농민군과 감영군은 태인의 용산 화호나루 부근에서 최초로 접전하였다.

이때 농민군 측은 거짓 패한 채하며 후퇴하였다. 다시 농민군 측이 고부의 매교로 퇴각하자, 백산의 감영군이 추격하였다. 이에 농민군은 또다시 거짓 패한 채하며 황토재로 올라갔다. 감영군 역시 계속 추격하여 황토재 인근에 진을 쳤다.

이렇게 두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동안 날이 어두워지고 4월 6일은 저물어갔다. 4월 7일 새벽이 되자 황토재 마루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농민군은 고개 아래에 주둔하고 있는 감영군 진영을 향하여 포를 쏘아대며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감영군은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일거에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농민군은 혼란에 빠진 감영군을 뒤쫓아 영관 이경호를 죽이는 등 감영군을 격퇴함으로써 관군과의 최초의 접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투는 동학농민군의 첫 접전으로서 이후 동학농민봉기의 전개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승리로 동학농민군은 크게 고무된 반면, 관군은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이 황토재는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까지, 즉 동학농민봉기가 ‘동학난(東學亂)’ 또는 ‘동비(東匪)의 난(亂)’이라는 이름으로 폄하되어 평가되고 다만 구전으로 기억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동학농민봉기가 지닌 반봉건·반외세의 민족운동이었다는 역사적 의의가 새롭게 평가되면서 이 전적지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1963년에 이르러 황토현에 ‘동학혁명기념탑’을 세우기 위한 ‘동학혁



▲ 동학혁명 모의탑

이 황토재는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까지, 즉 동학농민봉기가 ‘동학난(東學亂)’ 또는 ‘동비(東匪)의 난(亂)’이라는 이름으로 폄하되어 평가되고 다만 구전으로 기억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동학농민봉기가 지닌 반봉건·반외세의 민족운동이었다는 역사적 의의가 새롭게 평가되면서 이 전적지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명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해 10월에는 동학농민봉기 당시 농민군의 봉기와 승전을 기념하는 최초의 동학혁명기념탑이 이곳 황토현전투전적지에 건립되었다.

전적지의 구조는 기념관이 중앙에 위치해 있고 위로는 동학혁명 기념탑이 세워져 있고, 우측에는 청소년 수련장이 있다. 앞에는 드넓은 잔디밭이 있어 마치 골프장 같은 분위기이며, 잔디밭 중앙에는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무대가 있고, 연못이 있다. 또한 주위에는 각종 꽃나무와 관상수들이 심겨 있어 신혼부부들이 결혼식기념사진을 찍으러 많이 올 정도이다.

기념관 내부에는 전봉준 장군의 유품들과 갑오동학 혁명 당시 혁명군이 사용했던 무기들과, 당시의 생활 풍습을 알 수 있는 각종 문화재들이 전시돼 있다.

동학 교전인 『용담유사』와 『동경대전』 복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또한 조선시대 뛰어난 무기인 철대포가 있으며 동학교도들의 결의문인 사발통문과 집강소로 보내어지는 첩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알려 줄 수 있는 사진들이 소장되어 있다.

황토현 주위에는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동학농민



▲ 황토현 전적지 동학혁명기념탑



◀ 황토현 전적지 구민사

동학 교전인 『용담유사』와 『동경대전』 복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또한 조선시대 뛰어난 무기인 철대포가 있으며 동학교도들의 결의문인 사발통문과 집강소로 보내어지는 첩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알려 줄 수 있는 사진들이 소장되어 있다.





## 정읍

봉기의 직접적인 기포의 원인이 되었던 만석보가 있던 자리에 만석보유지비를 세웠다. 정봉준장군 고택 등 동학농민봉기 관련 유적이 산재되어 있으며, 정읍군에서는 매년 5월 11일 '갑오동학문화제'를 개최하여 이곳 황토현전투전적지를 기념하고 있다.

이외에 고부관아터, 만석보 유지, 전봉준 생가터와 단소, 김개남 단소, 말목장터와 감나무, 손화중 묘소 등이 있다.



▲ 전봉준 고택

### 전봉준 고택

고택은 장내리의 조소마을에 전형적인 초가 3칸의 돌담집으로 서 있다. 남향으로 터를 잡아 동쪽으로부터 부엌·큰방·윗방·끝방 순서로 되어 있다. 원래 방 1칸, 광 1칸, 부엌 1칸이었었는데 1974년 수리 당시 지금의 형태로 보수되었으며, 서쪽의 끝방은 살림살이 등을 넣어두는 도장(곳간)으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부엌에는 앞뒤로 두 짝의 널문을 달았고 큰방과 윗방은 장지문으로 통하며 모두 연등천장이다. 끝방의 앞쪽은 반쯤 짧은 담을 둘러 여기에 뿔나무를 두었으나 뒤에 덧붙여 지은 것 같다. 두 방의 앞에 뿔마루를 놓고 대문 동쪽에는 잣간을 겸한 변소가 있으며, 집 둘레에 돌담을 쌓았는데 돌 사이에 회를 넣어 굳히고 담 위는 짚으로 이엉을 엮어 덮었다.

1974년 해체 수리 당시, 상량문에 '무인 2월 26일...' 이라는 글귀가 한자로 적힌 것이 발견되어 장군의 고택이 1878년(고종 15)에 세워졌음이 밝혀졌다.

- 동학농민혁명기념관주소 :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8번지
- 전화 : 063-536-1894, 2310

◀ 전봉준 단소

1974년 해체 수리 당시, 상량문에 '무인 2월 26일...' 이라는 글귀가 한자로 적힌 것이 발견되어 장군의 고택이 1878년(고종 15)에 세워졌음이 밝혀졌다.



▲ 무성서원 강당

### 13. 동진강의 물소리가 들려오는 곳, 무성서원

정읍 태인면 칠보는 조선시대 그 어느 곳보다 유교문화가 풍성하게 피어났던 곳이다. 때문에 마을 곳곳에 서원과 사당, 누각 정자 유적비 석탑 불상 등의 문화유산이 수두룩하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성리 원촌마을에 위치한 무성서원이다. 칠보는 후기신라시대 태산군, 고려시대 태산현, 조선시대 태인군에 속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 지역 산 이름을 따서 칠보면이라 불리고 정읍군에 편입됐다.

무성서원(武城書院)은 신라 말의 고운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태인 현감이었던 신잠을 향사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원래는 태산서원이라 하던 것을 1696년(숙종 22)에 사액됨으로써 무성서원이 되었다. 사우에는 최치원을 비롯하여 신잠, 정극인, 송세림, 정언충, 김약묵, 김관 등을 배향하였다.





## 정음

현존 건물로는 현가루를 비롯하여 강당, 동서재, 사우, 비각 등이 있다. 이 서원에는 1486년(성종 17) 이후의 봉심안, 강안, 심원록, 원규 등 귀중한 서원 자료가 보존되어 있다.

신라시대 대문호이며 정치가였던 고운 최치원은 신라 정강왕 1년 지금의 태인인 태산군수로 부임해 왔다. 그가 있는 동안 치적이 뛰어나 군민의 칭송을 받았다. 후에 합천 군수로 떠나게 되니 그를 흠모하는 나머지 선생의 생전에 지금의 칠보면 무성리 성황산 서쪽 능선에 있는 월연대(月延臺) 생사당(生祠堂,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모시는 사당)을 세우고 태산사라 부른 것이 무성서원의 시초였다.

이 사당은 고려 말에 훼파되었다가 1483년(성종 14) 정극인(正克仁) 선생 사후 2년)에 유림들의 발의로 월연대에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오며 지금의 그 자리에는 불우현 정극인(不憂軒 丁克仁)이 창설한 향학당이 있었다는 설도 있다.

그 뒤 조선 1544년(중종 39)에 태인 현감이던 영천 신잠이 부임하여 7년 동안 역시 선정을 베풀었다. 신잠이 학당을 세우는 등 많은 치적을 남기고 1549년(명종 4)에 강원도 간성군수로 가게 되니, 주민들이 그를 사모하여 또 생사당을 세웠다.

1696년(숙종 22)에 무성(武城)이라는 사액을 받아 이 두 사당을 병합하여 무성서원이라 했다. 이 서원은 1868년(고종 5)에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서 위기에 처했으나 당시의 현감, 유림 등이 청원하여 화를 모면한 전라도의 철폐령에서 제외된 세 개 서원 중 하나이다.



▲ 무성서원 묘정비와 강당

신라시대 대문호이며 정치가였던 고운 최치원은 신라 정강왕 1년 지금의 태인인 태산군수로 부임해 왔다. 그가 있는 동안 치적이 뛰어나 군민의 칭송을 받았다. 합천 군수로 떠나게 되니 그를 흠모하는 나머지 선생의 생전에 지금의 칠보면 무성리 성황산 서쪽 능선에 있는 월연대(月延臺) 생사당(生祠堂,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모시는 사당)을 세우고 태산사라 부른 것이 무성서원의 시초였다.



◀ 무성서원 현가루



현재 건물로는 사우 3칸, 명륜당 5칸, 현가루 2층 3칸, 장수재 4칸, 흥학당 4칸, 서호순비각 1칸, 고사(庫舍) 3칸 등이며 1992년에 병오창의기적비를 김성년 정읍 군수가 세웠다.

문루인 현가루는 원주를 세운 2층으로 된 기와집이며 문을 들어 서면 정면 5칸, 측면 2칸의 강당이 있고 3칸 대청과 그 좌우에는 단칸의 협실이 있으며 동서재인 장수재와 흥학재가 있다.

무성서원은 전북 옥구 출신인 임병찬(1851~1916)이 의병을 훈련 시킨 곳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낙안군수 등을 지내다가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스승인 최익현과 함께 1906년 칠보의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8,00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순창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최익현과 함께 체포되어 대마도에 2년간 감금되었다. 결국 최익현은 그곳에서 단식 절명하였고, 임병찬은 1907년 1월 방환된 후에 다시 의병 활동을 하던 중 1914년 국권 반환과 일본군의 철병을 요구하다 체포되었다. 거문도에 구금된 그는 단식으로 항의하다 2년 뒤 세상을 떠났다.

무성서원과 연관이 깊은 최치원(崔致遠)은 자는 해부(海夫), 호는 고운(孤雲)이다. 857년(헌안왕 1)에 태어나 12세 때에 상선을 타고 당에 들어가 18세에 진사가 되었다. 당에서 벼슬을 하고 신라로 돌아오려 할 때 마침 황소의 난이 일어나 도통순관이 되었다. 그때 유명한 토황소(討黃巢)의 격문을 써서 천하에 이름을 떨치고, 전중시 어사를 제수 받았다.



▲ 무성서원 태산사

무성서원은 전북 옥구 출신인 임병찬(1851~1916)이 의병을 훈련시킨 곳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낙안군수 등을 지내다가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스승인 최익현과 함께 1906년 칠보의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 무성서원 태산사 전경



## 정음

그 후 4년이 지나 국신사로 885년(현강왕 11)에 귀국하여 한림학사, 병부시랑을 지내고, 태산(태인)군수로 부임했다.

선생은 중국의 문물을 신라에 들여왔으며 이학(理學)의 유종(儒宗)을 이루었고, 그의 저서는 『계원필경』 등 20여 권이 있다. 진성왕 때 강양군에 있는 가야산에 들어가 그곳에서 남은 생애를 지냈다. 1020년(현종 11)에 문창(文昌)의 시호를 받았다.

무성서원이 있는 칠보면은 과거 태산군의 중심지였고, 무성서원을 비롯하여 많은 유적지들이 있다. 남천사, 용계서원, 필양사, 도봉사, 향양재, 시산사, 송산사, 호호정, 감운정 등. 이 외에 석불입상 등 많은 문화 유적이 전하고 있다.



▲ 무성서원 강수재



▲ 송정

## 신잠(申潛)

자는 원양(元亮). 1491년(성종 22) 3월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1531년(중종 8)에 23세로 진사 시험에 합격하고 1519년(중종 14)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에 제수되었다.

예로부터 신하가 입시(入侍)할 때, 사관에 들어가는데 입시하는 사람보다 뒤에 들어갔다가 먼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後入先出). 신잠은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는데 잘못 기록할 염려가 있으니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종은 이에 옳다고 하여 먼저 들어갔다가 뒤에 나오는(先入後出) 법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폐지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한때 관에서 파직당하고 1521년(중종 16)에 장흥으로 유배되었다. 중종 38년 다시 주부로 기용되어 태인 현감으로 와서 7년 동안 사학을 세우는 등 많은 치적을 남겼다.

## 송정

송정(松亭)은 무성리 성황산 동쪽에 있으며, 광해군 때 세칭 7광과 10현이 모여서 놀던 곳이다. 광해의 정치에 반대하고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 폐모사건에 항소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 모여 자적의 세월을 보내니 세상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7광과 10현이라고 불렀다.

이들 후손들이 영당(影堂)을 세우고 7광도(七狂圖)와 10현도(十賢

무성서원이 있는 칠보면은 과거 태산군의 중심지였고, 무성서원을 비롯하여 많은 유적지들이 있다. 남천사, 용계서원, 필양사, 도봉사, 향양재, 시산사, 송산사, 호호정, 감운정 등. 이 외에 석불입상 등 많은 문화 유적이 전하고 있다.

圖)를 봉안하고 조상의 높은 기상과 우국의 뜻을 기리며 춘추(春秋) 중정(中丁)에 제사를 지낸다.

## 후송정

송정(松亭) 아래 산허리의 바위 위에 있다. 1899년에 화개현 김직술이 처음 지었다. 원래는 송정의 10현을 추모한다는 뜻에서 십송정이라 불렀는데 언제부터인지 후송정이라 했다. 1985년에 다시 좋게 지었고 바위 위에 후송정 42원비를 세웠다.



▲ 후송정

## 정순왕후 유허비

시산리는 조선조 제6대왕 단종의 비인 정순왕후가 탄생한 곳이다. 이 비는 정읍군 칠보면 시산리 동편마을에 서 있다. 정순왕후는 세종 22년에 여량부원군 현수의 딸로 태어나 단종 2년 1월에 왕비에 책봉되었다. 그러나 다음해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세조 2년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유배됨에 따라 왕비도 부인으로 강봉되었다.

왕비는 유폐된 단종을 생각하며 한 많은 세월을 보냈으며 단종이 돌아가신 뒤에는 동대문 밖 연미정동 속칭 신사 승방의 지점(현재 : 동대문구 송민동 12) 청룡사에 초옥을 짓고 정업원(淨業院)이라 했다. 사는 동안 날마다 절 뒤 바위산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며



◀ 정순왕후 유허비각

정순왕후는 세종 22년에 여량부원군 현수의 딸로 태어나 단종 2년 1월에 왕비에 책봉되었다. 그러나 다음해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세조 2년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유배됨에 따라 왕비도 부인으로 강봉되었다.



비통해 하였다.

중종 16년 82세로 별세하니 대군부인의 예로 장례를 지냈다. 숙종 24년 무인 11월에 단종이 복위되자 단종의 신위와 함께 창경궁에 봉안되었다가 종묘 영령전에 옮겨 모셨다. 정순왕후의 조부와 증조부가 이곳 고현 가양촌(정읍군 칠보면 시산리)에 정착하여 살았다고 한다.

### 남근석(男根石)

흰 바위(白岩)마을 입구 서쪽에 자리 잡은 이 남근석은 백암 마을 열두 당산의 하나이다. 전에는 남근석 당산 앞에 여근목(女根木)이 있었다고 한다.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13호이다.

화강암의 네모난 기단에 원통형의 남근 형태를 조각한 이 신앙물은 300년 전 이 마을의 자선사업가 모은 박잉결의 기부로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남근석 당산에는 음력 정월 초사흘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풍년과 제액(除厄)을 위하여 당산제를 올리며 자손이 없는 여인이 공을 들이면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 ● 무성서원주소 :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남근석 당산에는 음력 정월 초사흘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풍년과 제액(除厄)을 위하여 당산제를 올리며 자손이 없는 여인이 공을 들이면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 백암 남근석



## 14. 정읍인과 상춘곡의 고을, 정읍 칠보

정읍 내장산을 벗어나 쌍암동에서 49번 지방도를 타고 고개 하나를 넘으면 칠보면. 태인에서 임실·순창 등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자리한 교통의 요지인 칠보는 가사문학의 효시로서 봄의 정취를 노래한 「상춘곡(賞春曲)」의 고을이다.

상춘곡은 자연에 파묻힌 생활 속에서 봄날의 경치를 찬탄한 내용이다. 속세를 떠나 자연에 묻혀, 봄 경치를 완상하며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생활을 노래한 것이다.

천천히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맑은 모래 위로 흐르는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 부어 들고,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 떠나려 오는 것이 복숭아꽃이로구나/ ..... 소나무 숲 사이로 난 오솔길에서 진달래꽃을 붙들고/ 산봉우리 위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수많은 촌락이 여기저기 널려 있네. /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은 수놓은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하구나

국내 최초의 유역변경식 발전소로 건립된 섬진강 발전소의 송수관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정음 칠보면은 예부터 걸출한 인물들을 수없이 배출해 낸 인재의 고장이다. 그 인재 중의 한 분이 바로 정극인(丁克仁 : 1401~1481) 선생이다. 그리고 상춘곡은 그가 살던 칠보를 무대로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다.

가사는 총 39행 79구로 첫째 단락에서는 속세를 떠나 자연과 벗하고 풍류를 즐기는 삶을 제시한다.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 엇더하고, 넷 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로 시작되는 상춘곡 노랫말이 먼저 흥겹다.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과, 이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 옛 사람의 풍류(뜻)를 따르겠는가, 못 따를까/ 세상의 남자로 태어난 몸으로 나만한 사람이 많지마는/ 산림에 묻혀 있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단 말인가.

둘째 · 셋째 단락에서는 봄 경치를 즐기며 자연에 몰입하는 삶이 무릉도원에서의 삶과 비견되어 그려진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렇게 세속의 명리를 멀리하고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벗하며 사는 삶에 만족한다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공리와 명예도 나를 꺼리고, 부귀도 나를 꺼리니/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외에 그 어떤 벗이 있겠는가/ 누추한 곳에서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헛된 생각을 아니 하네/ 아무튼 한평생 즐겁게 지내는 일이 이만하면 족하지 않겠는가?

작품에 그려진 전체적인 내용은 벼슬에서 물러난 뒤 고향에 돌아와 은거했던 자신의 처지를 반영

국내 최초의 유역변경식 발전소로 건립된 섬진강 발전소의 송수관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정음 칠보면은 예부터 걸출한 인물들을 수없이 배출해 낸 인재의 고장이다. 그 인재 중의 한 분이 바로 정극인(丁克仁 : 1401~1481) 선생이다. 그리고 상춘곡은 그가 살던 칠보를 무대로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다.

▼ 정극인 묘소





하고 있다.

정극인의 자(字)는 가택(可宅), 호(號)는 불우현(不憂軒)이다. 1401년(태종 1) 8월 6일 경기도 광주군 두모포리(지금의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에서 출생하였다. 일찍이 학문을 하여 1429년(세종 11)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단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사간원 정언에 이르렀지만,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자 관직에서 물러나 칠보로 내려와 후학을 가르치며 지냈다.

정극인은 평소의 소신이 불교를 배척하는 것이었다. 한데 왕이 홍천사에 사리전을 창건하려 하자 조선조의 송유억불 정책을 들어 태학생들의 권당(捲堂, 동맹 휴학)을 앞장서서 주장한 탓으로 왕이 크게 노하여 정극인을 참형에 처하라 명했다. 황희의 구명 운동으로 간신히 사형을 면하고 북방으로 귀양살이를 갔다.

귀양에서 돌아온 그는 처가가 있는 태인에 내려와 초가삼간을 짓고 집을 불우현이라 하였다. 불우현의 뜻은 세상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는 집 앞의 맑은 냇물을 필수(泌水)라 하고 자연과 한 몸이 되어 지냈다.

1471년 조정득실 4조와 민생질고 4조로 된 소(疏)를 올렸고, 이에 왕이 원종공신의 호를 내렸다. 1472년 통정대부의 특지가 내리자 은총에 감격하여 「불우헌가」·「불우헌곡」을 지어 성은에 보답했다.

칠보에서 정극인은 고을 청년들을 모아 학문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태인향학의 시초가 되었다. 또 1475년에는 친목계를 만들어 마을 주민들을 참여케 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고현향약(보물 제1181호)이다.

1481년 8월 6일, 그의 나이 81세 때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은석동에 묻혔다. 은석동은 그가 상춘곡을 탄생시켰던 곳으로서 의미가 깊다. 사후 무성리 원촌마을에 있는 무성서원에 배향되었다.

정극인은 정치가로서보다 가사문학의 효시로 논의되는 「상춘곡」의 작자로 더욱 유명하다. 특히 「상춘곡」이 가지고 있는 가풍은 이후 송순의 「면앙정가」로 이어져 강호가도(江湖歌道)라는 시풍을 형성했다. 그밖에 단가인 「불우헌가」와 한림별곡체 「불우헌가」가 있으며, 문집 『불우헌집』이 전한다.

정극인은 정치가로서보다 가사문학의 효시로 논의되는 「상춘곡」의 작자로 더욱 유명하다. 특히 「상춘곡」이 가지고 있는 가풍은 이후 송순의 「면앙정가」로 이어져 강호가도(江湖歌道)라는 시풍을 형성했다. 그밖에 단가인 「불우헌가」와 한림별곡체 「불우헌가」가 있으며, 문집 『불우헌집』이 전한다.



TOURISM STORYTELLING  
전라북도 관광 스토리텔링 210선

## 정음

---

발 행 일 : 2009년 6월

발 행 처 : 전라북도청

연 구 총 괄 : 최 낙 환

고증및사진 : 하 태 규

글 쓴 이 : 전 숙 자

---

비매품